

장혁주 소설 「아귀도」에 대한 심층적 읽기*

김 주 현**

요약

「아귀도」는 장혁주의 등단작이자 대표작 가운데 하나이다. 「아귀도」는 경상북도 예천 지보면의 저수지 공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장혁주는 예천 지보공립보통학교 대용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한해(旱害)로 인해 농민들이 비참한 고통을 겪는 것을 직접 보았다. 「아귀도」는 일본 잡지 『개조(改造)』에 발표되었지만, 당시 검열로 인해 복자 처리된 글자가 무수히 많다.

검열 이전 텍스트에는 소작쟁의에 일제 권력기관이 개입하여 농민들을 탄압한 사실이 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일제는 농민들이 저항하는 모습, 농민들에 대한 일제의 고문 등을 대부분 지워버린다. 장혁주가 'xx감독'이라고 한 것은 감독이 일본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준다. 여기에서 노사갈등은 xx(일본인) 감독과 한국인 노동자의 갈등이라는 민족갈등으로 연결된다.

마지막 부분은 일제 권력에 항거하는 조선 농민들의 모습, 불의에 맞서는 민중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여기에서 사회주의적 계급 투쟁을 동정하는 동반자 작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장혁주는 일제의 검열 체제에 순응 내지 종속되어 가면서 조선의 비참한 현실 재현과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나 초창기 조선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그려낸 리얼리즘 문학의 성취점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주제어: 장혁주, 아귀도, 용암지, 용암지 기념비, 검열, 복원, 맥락적 읽기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경북대학교 연구년 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1. 들어가는 말
2. 1928년 한해, 용암지 공사와 「아귀도」 출현
3. 일제 권력의 횡포-소작쟁의자에 대한 탄압과 고문
4. 공사 감독을 향한 노동자들의 반일 및 저항 정신
5. 조선 현실 재현의 좌절과 일제 순응

1. 들어가는 말

장혁주는 일제 강점기 일본 문단에 등단하여 활동한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 그는 1932년 2월 「아귀도」가 『개조(改造)』 현상문예에 2등으로 입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육사는 「아귀도」가 실린 “4월호의 개조잡지가 짐을 풀자마자 전화가 빗발치듯 하고 나는 듯이 팔려 그 다음날 절판”이 되었다고 하였다.¹⁾ 「아귀도」가 발표되자 당시 비평가들도 주목하였는데, 그들은 이 작품을 “저수지 공사의 풍경을 여실하게 스케치한 사실적 이야기”,²⁾ “사실적 묘사”,³⁾ “가장 초기적 경향을 띤 실사(實寫)소설”,⁴⁾ “소설보다도 보고서”,⁵⁾ “한 폭의 생생한 사생화(寫生畵)”⁶⁾ 등 주로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논의했다.

그동안 「아귀도」는 민족주의 문학, 저항의 문학, 고발의 문학으로 규정되기도 했다.⁷⁾ 그런데 이 작품이 전반적으로 ‘민족주의’, ‘저항’ 내지 ‘고발’

1) 이환, 「신진작가 장혁주군 방문기」, 『조선일보』, 1932.3.29.

2) 이순, 「「아귀도」 독후감」, 『동방평론』, 1932.5, 81면.

3) 채충식, 「문예시평」, 『비판』 2-5, 1932.5, 120면.

4) 김광균, 「아귀도의 전망」, 『조선일보』, 1932.5.5.

5) 이무영, 김기림 등, 「문예좌담회」, 『조선문학』, 1933.11, 106면.

6) 현민, 「張赫宙氏의 文學的 行程」, 『조선일보』, 1934.7.5.

7) 야스타카 도쿠조(保高德藏)는 「아귀도」를 “작가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분명한 작품”(保高德藏, 1952; 유숙자, 아래 논문, 24면 재인용)으로 보았으며, 임전혜는 “식민지 조선의 농민을 다층적으로 착취하는 지주계급과 일본 제국주의를 정면에서 고발한 분노의 문학”(임전혜, 1965;

이라는 분위기(아우라)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도 「아귀도」를 비롯하여 장혁주 문학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의 친일 및 귀화로 인해 연구마저 금기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친일인가 반일인가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문제이고, 어떻게 조선을 그렸는가 하는 것이 문학적인 명제”라는 한 연구자의 지적처럼, 그의 문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⁸⁾ 친일/반일의 프레임을 간히게 되면 생산적인 논의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논의에서는 「아귀도」에 대해 실증적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장혁주의 「쫓겨가는 사람들」, 「권이라는 사나이」 등도 복자를 재구성함으로써 원 텍스트에 다가설 수 있었다.⁹⁾ 「아귀도」 역시 당시 문맥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원 텍스트를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곧 일제의 검열에 의해 지워진 글자들을 재구 및 복원해냄으로써 작품의 의미에 한 발 더 다가서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안과 바깥을 함께 살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논의에서는 1920년대 후반 예천 지보의 한해와 기근, 용암지 건설을 현실 맥락과 작품 맥락을 함께 살피 지워진 부분들을 복원하면서 이 작품이 갖는 의미를 궁구해보고자 한다.

유숙자, 21면 재인용)으로, 그리고 김학동은 “민족주의적 작품”(김학동, 42면)으로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도출된 것은 아니다. 유숙자, 『張赫宙의 문학행로-「餓鬼道」에서 「岩本志願兵」까지』, 『한림일본학』 5,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2000., 김학동, 『장혁주의 일본어 작품과 민족』, 국학자료원, 2008.

8) 남부진, 「解説 日本語への欲望と近代への方向」, 남부진·시라카와 유타카 편, 『張赫宙日本語作品選』, 東京:勉誠出版, 2003, 328면.

9) 김주현, 「보다 완전한 판본을 위하여-텍스트의 검열과 복원 고찰」, 『국어국문학』 186, 국어국문학회, 2019.3.

2. 1928년 한해, 용암지 공사와 「아귀도」 출현

「아귀도」는 경상북도 “지보면”, “도화리의 저수지 공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¹⁰⁾ 일제 강점기 경북 지역은 가뭄 피해(旱害)가 컸고, 그래서 여러 곳에 저수지 공사가 이뤄졌다. 그런데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의 용암지 공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혁주는 예천 지보의 보통학교에 근무하면서 당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직접 보았고, 저수지 공사 과정을 바탕으로 작품을 썼기 때문이다. 우선 가뭄으로 인한 예천 지역, 특히 지보면의 피폐한 현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북 각지에서 감우(甘雨)가 많이 왔다 하나 예천 지방에는 조금도 비가 오들 아니하여 관민의 열렬한 기우성(祈雨誠)도 수포로 돌아갔으며, 예천에는 수한재(水旱災)가 모두 없다 하는 상하리 지방에도 이앙을 못한 곳이 있고, 더구나 지보 풍양 일대와 개포 호명의 각면에 궁(巨)한 참상은 일층 흑심하다는데, 금후엔 강우가 있더라도 이앙 못한 곳에는 역시 못하리라고 농가의 비판이 여간이 아니라더라(예천)¹¹⁾

한해의 가장 심한 곳은 지보, 호명, 풍양 삼면으로 모두 미작 8·9할의 감수(減收)를 시(示)한 위에... (중략)... 지보면이 면의 토지는 별다르게 척박하여 대지주의 소유는 하나도 없고 모두 졸막졸막한 면내 소지주 곳자작농, 자작 겸 소작농들이 대개 소유하여 있어 그 중에도 자기들이 경작할 대로 골라서 경작하고, 나머지 비교적 박토를 소작인에게 소작케 하거나 또는 자작 겸 소작농이 해마다 쪼들리어 들어가는 형편에 박토 마지기 지니고 있던 것을 길래 가질 수 없게 되어 대지주에게는 가져가 보

10) 장혁주, 오경환 역, 「아귀도」, 김선학·장윤익, 『경주의 소설문학』,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2000, 126면, 138면.

11) 「旱驟와 祈雨祭」, 『동아일보』, 1928.7.14. 신문 기사에서 한자는 가능하면 한글로, 표기는 오늘날의 표기체로 바꾸었으며, 이해를 위해 쉼표도 일부 넣었음을 밝힌다. 이하 동일함.

아야 사지도 없음으로 자동리나 인동(隣洞)에 사는 조금 형세가 나온 사람에게 간원(懇願)적으로 팔게 되고는, 그것을 소작하게 되는 것들이 특히 이 면내 소작농들의 대부분의 경작지들이라 한다. 이와 같이 소작농의 경작하는 바 토지가 대개는 척박한 편이므로 금년같이 한재 태심한 해에 재해를 입는 정도가 타에 배가한 것은 의성, 안동 등 각지에서 왕왕히 듣고 본 바이 있었지마는 이 먼처럼 그 현저히 심하기는 드물게 보는 곳이었다.¹²⁾

이것은 당시 예천군의 한해(旱害)를 다룬 기사이다. 1928년 7월 지보 풍양면 일대에는 이앙을 못한 곳이 많았고, 11월 호명 지보 풍양 3면의 이앙율(1928년)은 3할 이상 5할 미만이었으며, 그래서 이들 3면의 수확이 80-90% 감소하였다고 했다. 지보면 풍양면 호명면이 다른 지역보다 더욱 피해가 컸음을 말해준다. 지보면은 면내 15 마을 가운데 “3할 1푼밖에 되지 못한 이앙면적은 그 대부분이 자농이나 반자농의 경작답이오, 소작농의 경작답은 극소 부분에 불과”¹³⁾하다고 했다. 게다가 지주의 소유는 없고, 자작농, 자작겸 소작농이 대부분인 데다가 소작농의 경지가 더욱 척박하여 가뭄으로 인해 이앙을 못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매우 컸다고 했다. 한해가 소작농에게 더욱 가혹했음을 말해준다.

경북 예천 지방의 한해 이재민의 참상에 대하여는 이미 약간 보도한 바어니와 요사이 춘궁에 이르러서는 초근목피도 여의히 얻을 수 없어 굶주리다 못하여 부중한 집이 2백여호이나 된다는데, 작년 12월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이 2백여명이나 되는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도무지 아무 계획이 없어 가기 싫은 만주를 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웃 동리 사람 모르게 밤중에 가만히 집을 떠나가다가 나중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처자를 데리고 몇 가지 의복을 가지고 기차를 타러 할 때 서로 만나 통곡

12) 「旱災의 慶北 二十四 移秧된 大部分은 自農이나 半自農」, 『동아일보』, 1928.11.3.

13) 위의 글.

하는 광경은 보는 사람으로도 눈물을 금치 못한다는데 지난달 31일도 예천역에서 더욱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통탄함을 마지 않게 하였다 한다. 군당국의 통계를 들건대 예천 지방의 이재민이 6천여명이라는바 이외에도 계속 생기는 참경에 있는 사람을 합치면 부지기수라 한다.¹⁴⁾

경북도에서는 지난 11일 한해민에 대한 제3회 식량을 배급하였는데 이번은 18,028원 14전의 일반 의연금과 지방비 보조금 5,720원 합계 22,748원 14전으로 배급처는 달성, 군위, 의성, 안동……예천 등 15군인바 이로써 구제식량이 오는 6월 10일까지 지지(支持)하리라 하여 도로서의 구제는 일단락을 고한 세움이라더라.¹⁵⁾

이것은 지독한 한해가 있었던 그 이듬해(1929) 예천군의 상황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1928년의 가뭄으로 1929년 4월 춘궁기에 부증난 집이 200여호가 되었고, 아무 계책이 없이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보면 내 소화동 25호, 마전동 30호, 지보동 25호, 도장동 20호, 도화동 35호, 신평동 35호, 대중동 18호, 압천동 23호, 어신동 38호, 송평동 26호, 수월동 25호, 상월동 15호, 만화동 24호, 매창동 30호, 마산동 25호가 굶주림(餓殍)에 빠졌으며, 이들 동면의 작황은 미작 8할 2푼 감수(평년실수고 12,402석), 전작물 6할 감수(평년실수고 53,075석)라고 했다. 그리고 한해 이재민이 6천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는 당시 한해가 극심해서 지보 면민들이 심각한 기근에 시달렸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경상북도에서는 1929년 5월에 한해 피해 농민들에게 세번째 식량을 배급하였으며, 6월 11일이 되면 배급을 그친다고 했다. 그리고 11월에 “예천 일대 한해 이재민 9만여명, 시급히 구제를 받아야 할 이재민 요구제자가 3만여명”¹⁶⁾이라 했다. 이는 3차례 식량 배급만으로 큰 효과를

14) 「慘澹한 旱害 罹災民 醴泉 一郡에 六千名」, 『동아일보』, 1929.4.4.

15) 「慶北 旱災民 道の 救濟 一段落」, 『조선일보』, 1929.5.13.

16) 「醴泉 一帶 旱害 罹災民 九萬餘名」, 『조선일보』, 1929.11.17.

보지 못했으며, 또한 1929년 역시 연속된 한해로 이재민이 폭증했다는 것이다.

지난 삼 년 동안 아낙네들은 초근을 캐서 양식을 보냈다. 혹심한 한발이 남선지방을 덮쳐 논이나 밭에는 대파으로 조를 갈았으나 그것마저 잘 익질 않았다. 가을에 거둔 조나 콩은 지주들에게 뺏기니, 농민들은 하는 수 없이 무나 배추, 고추잎이나 콩잎 말린 것을 양식으로 했다. 그것마저 모자라기 일쑤여서 들판인 언덕을 뒤져 풀뿌리를 캐어왔다. 해마다 농비 부담 때문에 팔릴만한 세간은 처분해버려, 돈이 될만한 것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¹⁷⁾

야반도주는 이 마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나 인근 마을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가재도구를 팔고 만주로 간 집이 이 마을에도 두 집 있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풀죽으로 목숨을 부지하거나 굶어죽거나 했다.(135면)

장혁주는 1927년 가을부터 1929년 봄까지 예천 지보공립보통학교 대용교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한해로 인해 농민들이 비참한 고통을 겪는 것을 직접 보았다. 「아귀도」는 1931년 10월에 창작되었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도화리, 신평리, 대죽리(한대), 도장리, 마산리 등 지보의 마을 지리와 마전강, 비봉산 등 예천의 자연 지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 지역은 당시 한해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했다. 그들은 풀뿌리로 연명을 하며 세간마저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삶의 기반을 잃고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한해의 피해가 컸던 지보면 도화리에 용암지가

17) 장혁주, 오경환 역, 「아귀도」, 김선학·장윤익, 『경주의 소설문학』, 경주대학교 경주문화연구소, 2000, 126면, 131면. 한편 이 작품에 대한 번역으로 호테이 도시히로(布袋敏博)가 편역한 『장혁주소설선집』(태학사, 2002)도 있지만, 오경환의 해석이 더욱 정확하여 오경환의 번역본을 인용하기로 한다.

건설되었는데, 이것이 「아귀도」의 배경이다. 그러면 당시 기사와 용암지 기념비를 통해 용암지 건설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해 구제의 근본 대책은 직접의 식량배급의 방법을 피하고 차등(此等) 부조의 방법을 강구코자 목하 조사 중인바 취중(就中) 일거양득의 이익이 유(有)하다는 수리사업에 대하여는 각지 공히 요망이 답지하여 군위, 의성, 안동……예천의 7개 관내 39개 면에 궁(巨)하여 184개소 몽리(蒙利) 면적 4,811정 3반보(反步)의 수리개선공사를 계획하고 목하(目下) 도당국에 보조를 신청하였음으로 도 수리과에서는 과원으로써 4만을 조직하여 각지에 출장하여 19일부터 일제히 조사를 개시하게 되었다더라.¹⁸⁾

이 공사는 지보면의 한해 이재민을 구제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보면은 삼년 동안의 한발로 아사자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중에서 그 피해가 가장 심한 지방이었다. 공사가 시작되자 면내의 농민이 칠백명이나 모여들었다.(126면)

경상북도에서는 한해 구제대책으로 수리개선 공사를 계획하고, 1928년 9월 19일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예천 지역에서는 한해 피해가 컸던 지보면과 풍양면이 수리개선공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아귀도」에 ‘도화리 저수지’라고 나왔는데, 곧 지보면 도화리의 용암지 공사를 말한다. 저수지 공사는 한해 피해 극복과 이재민 구제를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장혁주는 「아귀도」에서 지보면이 경북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심했으며, 그래서 굶주린 농민들 700명이나 저수지 공사에 모여들었다고 했다.

경북 예천군 지보면장 윤광한 씨가 설계한 동면 용암동 용암못과 동군

18) 「旱害對策으로 水利事業計劃」, 『동아일보』, 1928.9.17.

풍양면장 정원모 씨의 설계인 풍천못이 각각 그 공사가 낙착되어 지난 9일에 지보면과 10일에 풍양면과 당치소에서 동 군수 박제륜을 비롯하여 지주 기타 청객 300여명의 집합으로 성대한 낙성연을 하였다는데 용암못은 30정보의 개수를 하며 풍천못은 50정보나 개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¹⁹⁾

그리고 1930년 10월 9일과 10일 지보면 용암지와 풍양면 풍천지의 완공 낙성식을 하게 된다. 수리사업이 시작되고 2년 사이에 저수지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여기에서 용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용암지에는 저수지를 완공한 후 세운 용암지기념비가 있어 저수지 형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此之池其澤也 漸宜道人之刻之石而永其思也 池之成居戊辰 碑之成在癸酉 侯則時已陞秩 在東道 榮途方亨云 係以稱道人之歌 …(중략)…

工事費	二萬七千圓
蒙利面積	五百五十斗落
起工	昭和四年四月一日 ²⁰⁾

이것은 용암지 못둑에 서 있는 비의 내용 일부이다. 이 비에는 “이 저수지가 윤택해짐에 점차 도민들이 그 뜻을 돌에 새겨 영구히 해야 할 것이다. 저수지는 무진년(1928)에 이뤄졌고, 비는 계유년(1933)에 이뤄졌다”고 새겨져 있다. 여기에서 ‘池之成居戊辰’은 저수지가 완성된 시기가 아니라 생성된 시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1928년 9월 19일 수리사업 조사

19) 「醴泉郡 兩面 池塘 落成宴」, 『조선일보』, 1930.10.17.

20) 용암지는 현재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에 있으며, 오른편 못둑에 용암지 기념비가 자리해 있다. 비의 크기(cm)로 비신은 50×22×133(가로×세로×높이(받침돌에서 덮개돌까지))이고, 덮개돌(83×52×33)이다. 비의 받침돌(臺石)은 문혀있고, 받침돌에서 비의 총 높이는 166cm이다. 비가 놓인 지점 좌표는 36.5359812, 128.4157083이다.

에 들어갔으니 그해부터 못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저수지의 기공(起工), 곧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때는 1929년 4월 1일(昭和 四年 四月 一日)이다. 이때부터 저수지 공사가 시작되어 1930년 10월 9일 낙성식을 하게 된 것이다. 1년 6개월의 공사를 거쳐 용암지가 완공되었다. 그리고 1933(계유)년 기념비를 생성하고, 1935년 10월에 비를 마무리하였다.²¹⁾ 이 비가 용암지에 대한 당대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면 「아귀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용암못 뚝에 있는 〈용암지기념비〉

3. 일제 권력의 횡포-소작쟁의자에 대한 탄압과 고문

「아귀도」는 일본 잡지 『개조(改造)』에 일본어로 발표되었지만, 당시 검열로 인해 복자 처리된 글자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독해에 어려움이 있다. 『개조』지에 실린 「아귀도」에 복자수는 총 87군데 506자가량이다.²²⁾ 적게는 1글자부터 많게는 35글자가 복자되었으며, 또한 가장 심하게 복자

21) 내용으로 보건대, 1933년 처음 비를 새겼고, 또한 1935년 내용을 추가해서 새긴 것으로 보인다.

22) 「아귀도」는 장혁주의 첫 소설선집 『權といふ男』(개조사, 1934)에 실렸는데, 여기에서는 '투쟁'과 관련된 구절 2군데 8글자가 추가적으로 검열로 인해 복자가 이뤄졌다.

가 된 곳은 24면으로, 중간 단락은 한 단락 전체 89자 가운데 56%에 해당하는 50글자가 지워졌고, 이어진 단락 역시 161자 가운데 44%에 해당하는 71자가 지워졌다. 아래 내용은 그 두 단락을 번역한 것이다.

XXXXXXXXXXXXXXXXX, 한골, 마산이들을 불러내어 데리고 갔다. 농민들은
XXXXXXXXXXXX이 있었던 후 한 조선인XXXXXXXXXXXXXXXXX. 그후 닷새동
안 그들은 XXXXXXXXXXXX. 그러나 그보다도

“누가 그런 짓을 시켰어?”

라고 심문을 받았을 때는 괴로웠다. XXXXXXXXXXXXXXX 당한 것처럼 생
각하고 있는 듯했다. 마산이들은 XXXXXXXXXXXXXXXXXXXX, 그렇게 심
문받았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바지를 벗기고
XXXXXXXXXXXXXXXXX, 손바닥을 XXXXXXXX 당하기도 했으나, 그때마
다 그들은 아얏하고 소리지르고 XXXXXXXXXXXX였다.(153면)

이 두 단락은 「아귀도」 전체에서 검열이 가장 많이 이뤄진 부분이다. 두 단락으로 보면 절반 정도가 지워졌기 때문에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검열로 인해 지워진 부분을 살피고자 한다. 이 부분을 전체 내용과 연관시켜, 이른바 ‘맥락적 읽기’를 통해 의미에 접근하려고 한다. 우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경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작년, 뱃골리 사람들이 소작미를 바치지 않으려고, 지주의 심부름꾼을 두들겨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주모자라고 할 마산이들 다섯이, 읍내의 XXXXXXXXXXXX, 닷새 동안 XXXXXXXX했던 것이다. 지금도 그때의 XXXXXXX이 뚜렷이 생각나는데, 그토록 공명 XXXXX들이, 왜 이 감독의 XX를 잠자코 보고만 있는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농민이 이토록 흑사당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한해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XXXX, 이렇게 해서 된 저수지는 어김없이 지주들과 감독들에게만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

다.(149면)

작년 뱃골리 사람들이 소작미를 바치지 않으려 지주의 심부름꾼을 두들겨주었으며, 이로 인해 마산이 등 다섯이 ‘읍내의 xxxxxxxxxxxx, 닷새 동안 xxxxxxxxxxxx했던 것이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작년 겨울처럼 야단법석을 떨어봐, 또 콩밥을 얻어먹게 돼”(149면)라는 한글의 말을 통해, 마산이와 다섯 사람이 읍내의 (경찰서 유치장에) 5일 동안 구류되었던 사실을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예천에는 읍내에 경찰서 1곳과 각 면에 주재소 11곳이 있었다.²³⁾ 콩밥을 먹었다는 말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과 마산이들을 데리고 간 사람은 순사들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농민들은 소작료 징수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순사들은 한글, 마산이 등 주모자들을 끌고가 경찰서 유치장에 가뒀으며, 그(농민)들은 그곳에서 닷새 동안 취조를 받았다. “누가 그런 짓을 시켰어?”라는 것은 순사들의 심문 내용이고, 그들은 농민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소작쟁의를 한 것으로 생각해 그렇게 물은 것이다. 그런데 순사들은 이렇다 할 답변을 얻어 내지 못하자 농민들의 바지를 벗기고 손바닥에 고문?을 가하였다. ‘아얏!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으로 보아 고문이 분명하지만 그 내용은 검열로 사라졌고, 작품 내에서는 그러한 고문의 단서를 찾기 어렵다.

一. 訊問할 人의 衣를 脫한 後에 一腕은 肩上一으로 他一腕은 腋下로 兩手が 背上一에 相接케 한 後 兩拇指를 麻繩으로 緊縛하여 天井에 設한 鐵

23) 1928년 12월 기준 예천군에는 경찰서 1, 경찰관 주재소 11개소 등 도합 12개소가 있었으며, 경부 1명(일본인), 경부보 2인(일본인1, 조선인1), 순사 49인(일본인 25, 조선인 24) 도합 52명(일본인 27, 조선인 25)이 있었다. 1면 1주재소 원칙에 따라 지보면에도 1개의 주재소가 있었다. 경상북도 편찬, 『경상북도통계연보』, 대구인쇄합자회사, 1930, 125면. 「통계실」(『동아일보』, 1925.3.23)에도 예천군에 경찰서 및 주재소가 12개소로 조사되었는데, 예천경찰서 1개소, 각 면에 주재소 11개소를 합한 숫자이다.

鉤에懸하고繩의一端을引하면人이空中에懸케되다(1. 신문할 사람의 옷을 벗긴 후에 한 팔을 어깨의 위으로, 다른 한 팔은 겨드랑이의 아래로, 그리고 두 손이 등위에 서로 맞닿게 하고서 두 개의 엄지가락을 삼노로써 단단히 매어 그것을 천정에 박은 쇠갈고리에 달고 노끈의 한끝을 잡아당기면 사람은 공중에 둥둥 뜨게 된다.)²⁴⁾

다섯째는 양손을 묶어 고가에 매디는 것이다.(縛兩手懸之高架五也)²⁵⁾

『조일관계사료집』에는 3.1운동 때 일제가 감옥에서 가한 만행과 고문의 실상이 기술되어 있다. 그 첫 번째가 신문할 사람의 옷을 벗긴 후 양손을 묶어 고가(高架)에 매디는 것인데, 이는 「견문잡감」에도 실려있다. 장혁주가 제시한 “掌をxxxxxxxxxxxxれたりしたか”(24면)는 그러한 고문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지를 벗기’거나 손바닥을 ‘xxxxxxxxxx’하는 만행은 나체로 지면에 엎드리게 하고 곤장과 대나무 채찍으로 후려 패거나(六. 裸體로 地面에 伏하고 棍杖과 竹鞭으로 猛打하기), 예리하게 깎은 죽침으로 손가락을 찌르는(竹針針手指四也, 二十二. 銳利하게 깎은 竹針으로 爪와 肉의 間을 刺하여) 고문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보다는 당시 흔했던, 옷을 벗기고 매디는 고문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한글의 말 “콩밥만 먹는다면 괜찮지만 xx이 무서웠다”(149면)에서 xx는 경찰서 순사들이 유치장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가한 가혹 행위를 일컫는다. 마산이와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고문을 받을 때마다 ‘아얏!’하고 비명을 질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은 일제 검열로 사라지고, 다만 마산이 등이 읍내(경찰서)에서 5일간(간혀 있으면서) 옷을 벗기우고 손을(묶어 매디는 고문)을 받았다는 정도만 남아 있다.

이 작품에서 한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지주에게 가엾은 사정을 호소했지만, “지주들은 ‘안 돼. 조 여덟 섬에 콩 세 섬이야. 바쳐!’라면서 똥

24) 임시사료편찬위원회, 『조일관계사료집』, 1919. <https://db.history.go.kr/item/level>.

25) 대공, 「견문잡감」, 『천고』 2호, 천고사, 1921.2, 27면.

배를 불룩거리면서, 수첩에 적어놓고는 집집마다 차례로 명령을 하고 고개를 넘어가 버렸다”(150면)고 했다. 여기에서 농민들의 배고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지주들의 몰인정이 제시된다. 아울러 마름은 가난한 소작농들에게 강제로 소작료를 징수하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쫓겨난다. 그러자 지주들은 그러한 행위를 한 한 톨, 마산이들을 고발하여 일제 순사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잡아간다. 검열 이전 텍스트에는 소작쟁의에 일제 권력기관이 개입하여 농민들을 탄압한 사실이 들어 있었다. 그렇지만 일제는 농민들이 저항하는 모습, 농민들에 대한 일제의 고문 등을 대부분 지워버린다. 일제 순사들의 구류와 고문 사실은 일제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일 것이다.

4. 공사 감독을 향한 노동자들의 반일 및 저항 정신

한편 「아귀도」에서 가장 먼저 복자로 처리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監督が請負らてゐた(3면, ××감독이 청부를 맡았다).

××監督は水門工事場で指圖してゐた.(5면, ××감독이 수문공사장에서 지휘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첫 번째 예문은 「아귀도」에서 처음으로 복자 처리된 부분이고, 두 번째 것은 세 번째로 복자 처리된 부분이다. 곧 이 작품에서 ‘××감독이 가장 먼저 복자로 처리되었다. 검열 이전 원텍스트에 ‘××감독’으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장혁주 스스로 ‘××감독’이라고 쓴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는 「아귀도」에 이어 탈고한 소설 「迫田農場」(1932.6)에서 ‘하사마(迫間)農場’을 ‘迫田農場’으로 썼기 때문이다.²⁶⁾ 이는 비록 한 글자를 바꾸긴 했지만, 농장의 주체가 일본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

로 풀이된다. 또한 「분기한 자(奮ひ起つ者)」(『文藝首都』, 1933.9)에서도 교장을 ‘林教長’, 곧 일본에서 온 ‘하야시교장’이라고 밝혀 썼다.²⁷⁾ 「아귀도」에 등장하는 군수의 경우 성씨 표기가 없지만, 면장의 경우 “윤면장”(136면)이라고 썼다. 만일 익명성을 위해서라면 군수도 ‘×군수’, 면장도 ‘×면장’이라고 했을 터이다. 달리 작가가 감독에 대한 실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성을 달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起工 及 竣工 紀念人 郡守 宋文憲 面長 稷長 尹光漢 副稷長 鄭文寬 區
長 評議員 金華鎮 工事設計者 有松雄彦 工事監督 柴田清市 書記 尹昌鉉
會計書記 玄惠基 郡屬 尹相騎 評議員 崔洪喜 鄭源赫 金鎮殷 俞鳳俊 林正
元 金炳豹 趙秉龜

昭和 十年 乙亥年 十月 日 豊山 金靑燮 書

‘××감독’과 ‘×감독’, 또는 그냥 ‘감독’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차이는 크다. 익명으로 ‘감독’이라 하면 그냥 악독한 감독으로 치부되겠지만, ‘××감독’은 그 의미가 달라진다. ‘××감독’이라는 것은 감독이 일본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이다. 사회영은 “농민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계급으로 일본인 감독”(사회영, 234면)이라고 언급했지만, 왜 그렇게 간주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단순히 ‘××감독’ 때문인지, 아니면 당시 그러한 공사를 담당할 만한 감독은 일본인밖에 없었을 것이란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였는지 잘 알 수 없다.

그런데 용암지기념비에는 용암지 건설 관계자의 면면이 잘 드러나 있

26) 迫間農場은 일본인 하자마(迫間房太郎)가 경영하는 농장이었다. 장혁주는 소설에서 ‘迫間農場’을 직접 쓸 수는 없어 ‘迫田農場’이라 썼지만, 이것은 일본인 소유 농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27) 張赫宙, 「奮ひ起つ者」, 『文藝首都』, 1933.9, 59-91면 ; 『장혁주소설선집』, 59-96면. 장혁주가 교장의 국적을 분명히 한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인 교사 김철과 일본인 하야시 교장의 갈등을 단순히 개인 또는 계층 간의 갈등이 아니라 민족갈등임을 드러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다. 당시 예천군수는 송문헌, 지보면장은 윤광환, 공사감독은 柴田清市이다.²⁸⁾ 작가는 윤면장을 “살찐 윤면장”(136면)이라 하여 굶주린 백성들과는 다른 부류임을 지적했고, 또한 “면장과 주재소장이 칼을 찰작거리며”(137면)²⁹⁾ “당국자의 고마운 혜택을 칭송하”(138면)는 등 그가 권력을 과시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인물로 제시했다. 군수는 익명으로 제시되었는데, 그 역시 농민들의 생활은 안중에 없고, 출세를 위해 빈민 구제를 “자신의 선정으로 상관에게 보고”(155면)하려는 권력 지향적인 인물로 제시된다.³⁰⁾ 이들과 노동자 농민들의 갈등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공사의 책임을 맡은 감독과의 갈등이 노골화된다.

감독은 이들 농부들의 일하는 모습을 밭살스럽다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개미처럼 느릿느릿 걷는 데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127면)

“한씨도 말하더구만 ‘너무 심하다’고 말이야. 그리고 큰 소리론 못하지만, 감독은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죄다 자기 몫으로 가진데, 수문 공사도

28) 柴田清市는 1937년 10,000원의 자본금을 내 토목건축 합자회사를 운영하는데, 이에 비취 그가 용암지 건설 감독으로 있으면서 적지 않은 축제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柴田清市는 吉田習孝, 吉田春雄 등과 1937년 1월 30일 대구 북용강정 5번지에 자본금 50,000원으로 토목건축 청부업을 하는 合資會社吉田組를 설립하였는데, 柴田清市는 자본금 10,000원을 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item/level.do?setId>)

29) 본문은 “面長と, 駐在所長がサーベルをかちやつかせ乍ら”(『改造』, 12면)인데, 호테이 토시히로는 “삽으로 소리를 내며”(21면)으로 번역했다. 주재소장=(순사부장)이 칼을 차고 다녔다는 측면에서 오경환의 번역이 타당하며, 후자는 오역으로 볼 수 있다.

30) 용암지기넘비는 송문헌 군수의 선정비에 다름없다. 『龍巖堤記』는 김휘택이 기록하였는데, 총 381자로 이뤄져 있다. 저수지 제방의 건설과정을 기록하였지만, 송문헌의 선정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비가 이루어진 것은 계유년(1933)이다. 제후는 이때 이미 승진하여 동도에 있었고 벼슬길에 바야흐로 형통하였다고 한다”(碑之成在癸酉 侯則時已陞秩 在東道 榮途方亨云)는 구절이 있다. 당시에 그는 경북도청 내무부보 승진해 있었다. 송문헌(1892.6.29. 생)의 이력은 아래와 같다. 1924년 12월 24일 醴泉郡守, 1928년 11월 16일 大禮記念章 授典, 1929년 6월 16일 命 尙州郡守, 1929년 12월 28일 陞敍 高等官五等, 1930년 4월 4일 任 朝鮮總督府 道理事官 敍 高等官五等 慶尙北道 內務部 産業課長, 1932년 1월 15일 敍 勳六等 授 瑞寶章, 1934년 1월 16일 慶尙南道 産業部 産業課長, 1935년 4월 1일 命 京畿道 産業部 産業課長.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sort>)

꽤나 눈가림이 많다고 하더군. 한씨와 감독은 사이가 나빠 노상 다투고 있잖나. 한씨는 저래 배도 꽤 친절하니까.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금 까지 줄곧 사십 전씩 받고 있었지. 한씨의 일이 xx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자기가 따로 도급을 맡고 있어. 그래서 마음대로 되는거야.”

“그렇다면 영감, 우리에게 주라는 임금의 나머지는 모두 감독이 가로채는 것이 되는구만.”(148면)

감독은 십장들을 칭찬했다. 밤이 되면 약주나 소주를 마시고 닭을 잡았다.

그 사이 두 번 도청의 기사가 검사하러 나왔다. 감독은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닭과 소고기를 구해서 대접했다. 기사는 수문공사의 약간 잘못된 곳을 고치게 하고 가버렸다. 기초공사의 검사는 무난히 통과되었다.(154면)

위의 세 예문은 감독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감독은 십장들을 통해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부려먹고 그들의 임금을 가로챈다. 저수지 공사를 도급받아 일하는 한씨와 비교해보면, 감독의 부도덕성과 비인간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한씨도 감독처럼 노동자를 데리고 일을 하지만, 그는 폭력적이 아니라 친절하며, 감독이 주는 25전보다 훨씬 많은 40전의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 감독은 자신보다 윗지위에 있는 군수에게는 아량 있는 것처럼 눈속임하며, 도청 기사에게도 융숭한 대접을 함으로써 검사를 무난히 통과한다.

감독은 “아무리 xx라 해도, 저렇게 꾸물거리지는 않을 거야.”(128면)처럼, 노동자들이 일이 더디다고 호통치며, 십장들을 옥죄는가 하면, “상관 말고 더 시켰!”(128면)이라 하며 노동자들에게 초과노동을 강제하기도 한다. 아울러 “우린 마소보다 혹독한 대우를 받고 일하고 있는데, xx라는 감독이 우리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있지 않는가”(169면)에서 보듯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면서 임금을 착복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일제 검열 당국

은 ‘××감독’이라 하여 감독이 일본인이라는 표지를 일부러 지운 것으로 보인다.³¹⁾ ××감독은 일제 권력기관과 결탁하여 식민지 농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여기에서 노동자와 감독의 노사갈등은 임금착취를 넘어 일제 권력과 결탁한 ××(일본인) 감독과 한국인 노동자의 갈등이라는 민족갈등으로 이어진다. 곧 계급갈등을 넘어 민족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윤은 그리 말하고는, 농민들이 받아야 할 임금의 대부분을 감독이 ××하고 있다는 사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 ××하고 있다는 등을 조리 있게 말했다. 농민이 버리지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말하고, 그저께 밤의 사건을 예로 들고, 농민이 단결하면 반드시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170면)

요구

임금을 세배로 할 것.

아침 8시부터 저녁 4시까지 일을 시킬 것.

××하지 말 것.(170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위의 세 가지이다. ‘임금을 세배로 하라는 것’은 현재의 25전에서 75전으로 올려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농민들이 받아야 할 임금의 대부분을 감독이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독이 ××하고 있다’는 것은 “감독이 우리들의 임금을 가로채고(とつてるんぢや)”(189면), 곧 착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 ‘××하지

31) 「쫓겨가는 사람들(追はれる人人)」에서 ‘일본’이라는 표현은 장혁주의 원작을 번역한 에스페란토어 번역본에는 총 7군데 나타나지만, 일본어 발표본(『改造』, 1932.10)에는 2군데만 드러난다. 일제는 ‘일본 회사’, ‘일본이 운영’, ‘일본말’(2군데), ‘일본에서 온 사람들’ 등 동양척식회사(일본 회사, 일본 운영), 순사 및 동척 소장이 일본인임을 알려주는 표지(일본말), 마을 사람들이 쫓겨난 농지를 새로 경작하는 낯선 ‘일본’인 등에서는 모두 지워버리고, 다만 조선인이 돈을 벌러 ‘일본’에 간다고 언급한 2군데만 그대로 두었다.

말 것은 ‘××하고 있다’, ‘××당하지 않아도 된다’와 연결된다. 이것은 감독이 십장들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처벌, 곧 “가죽채찍을 휘두르고 큰소리를 내면서 질타”(143면), “영덩이를 걷어”차기(145면), “끔찍한 린치”(146면), “뺨을 갈”기기(147면), 집단구타(159면)와 같은 린치(私刑)를 의미한다. 노동자들이 내세운 것은 정당한 보수, 노동시간 준수, 인권 보장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동부 마을들의 농민들에게도 서부 마을들의 농민들처럼 요구조건을 내게 하려고, 점심때 윤이 얘기하고 있느니, 마을 쪽에서 감독 ××이 와서 윤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윤은 따라가기를 거절했는데, “줍 와. 의논할 게 있어.”

라 하고, ××가 윤의 팔을 잡고 끌고갔다. 젊은 농민이 걱정이 되어 따라가 보니, ××는 그대로 산을 넘어, 윤을 ××까지 다리고 가서 ××해 두는 것이었다.(172면)

“모냐, 모냐?” 조선말로 고함을 지르면서 검정색 정복을 입은 순사들이 뛰어왔다. 사무원이 서투른 일본말로 뭐라고 말하자 순사는 “이 놈이가?” 하고 말하면서 옥련이 아버지 팔을 잡았다.

“내가 와 경찰서에 가노!”

옥련이 아버지는 팔을 뿌리쳤다.

“오라면 와.”

순사가 옥련이 아버지를 끌어가며 입구에서 고함을 질렀다.³²⁾

윤과 젊은 농민들은 요구사항을 들고 감독과 담판하러 갔다. 처음에는 감독이 힘으로 그들을 쫓으려고 했지만, 마산이들의 기세에 억눌려 가능

32) 장혁주, 大島義夫 에스페란토 역, 이종영 한국어 역, 『쫓겨가는 사람들 La Forpelataj Homoj』, 한국에스페란토협회, 2002, 52면. 위 인용문에서 밑줄 친 부분은 일본어 발표본에는 삭제되었다.

하면 내일까지 요구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회유한다. 농민들은 감독의 말을 믿고 의기양양하게 나왔다. 그러나 다음날 윤이 요구조건을 제시하려고 할 때 감독과 순사(?)가 윤을 오라고 한다. 감독이 순사를 대동했을 것이란 점은 「쫓겨가는 사람들」의 예문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농민들이 동척 사무원과 다투자 ‘검정색 정복을 입은’ 일본인 ‘순사(들)가 달려온다. 그리고 그들은 주동자인 옥련 아버지를 경찰서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쫓겨가는 사람들」에서 ‘순사’는 밀줄 친 것처럼 모두 검열로 인해 삭제되었다.³³⁾ 한편 「아귀도」에서 윤이 따라가길 거부하자, ‘××가 윤의 팔을 잡고 끌고’ 간다. 여기에서 ××는 감독과 한편인 ‘순사’일 것이다. ‘순사’는 “순사부장-주재소장”(136면)에서 한번 드러났을 뿐 검열로 인해 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순사는 윤을 ‘×××’까지 데리고 가서 ‘××’해 두었다. 그렇다면 ‘×××’는 무엇인가?

마산이는 감독의 팔을 잡고 밀쳤다. 군중은 저마다 욕을 하면서 뒤따라갔다.

감독을 둘러싼 행렬은 산을 넘고 고개를 내려 ××××××××××××.(173면)

시라카와 유타카는 “농민들이 단결하여 개선요구를 내고 ×××(경찰서?) 쪽으로 행진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다.³⁴⁾ 마산이가 잡혀간 곳을 경찰서로 추정하는 것이다. 당시 경찰서는 예천 읍내에 있었으며, 가까운 지보면 소재지에는 주재소가 있었다. 공사현장에서 지보면 주재소는 직선거리로는 2.6km이지만, 중간에 산이 있어 많이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예천경찰서까지는 직선으로 13km 정도이다. 경찰서는 “40리 북쪽의 읍내”(127면)에 있었는데, ‘산을 넘고 고개를 내려’갔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33) 「쫓겨가는 사람들」에서도 ‘경찰서’, ‘순사’는 모두 복자 처리되어 있다. 김주현, 앞의 글, 2019.3, 247-251면.

34) 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48면.

것을 의미한다. 군중들은 권씨가 간혀 있는 곳으로 간다. 지보면의 주재 소이든 예천읍의 경찰서이든 산을 넘고 고개를 내려가야 한다. 당시 상황이나 기사로 볼 때, 지보면의 어떤 인물을 잡아갈 때는 지보주재소 순사들이 나섰을 것이며, 그를 심문 취조하기 위해 유치장이 있는 예천경찰서로 끌고 갔을 것이다.³⁵⁾ 곧 순사들은 윤을 (예천)경찰서까지 데리고(끌고) 가서 유치해 두었을 것이다. 그것은 일제 통치 권력의 작동을 뜻하며, 농민들이 윤을 찾으러 나선다는 것은 그러한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마지막 부분은 일제 권력에 항거하는 조선 농민들의 모습, 불의에 맞서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희망을 안고 투쟁에 나서지만, 그들의 앞날이 어떠할지는 알 수 없다. 작가는 그들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앞선 내용에서 “농민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으나, 설사 성공했다 한들, 그리 큰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xxxxxxxxxxxxxxxxxxxxxxxxxxxx였기 때문”(156면)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설사 성공한들’이라고 말한 것은 농민들의 투쟁이 성공하기보다 실패할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³⁶⁾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사회주의적 전망 제시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사회주의적 계급 투쟁을 동정하는 동반자 작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³⁷⁾

35) 1928년 8월 3일 예천경찰서 고등계 풍절(風折)순사가 지보면 주재소의 응원을 얻어 만화리 한일청(韓一淸)을 검거하였으며, 또한 1937년 1월 17일 예천군 지보주재소 목촌(木村) 수석 이하 정(鄭) 엄(嚴) 양 순사가 도박단 28명을 검거하여 예천경찰서에서 엄중한 취조하고 있다고 했다. 『醴泉署緊張 青年 一名 檢束』(『동아일보』 1928.8.8.) 및 『三十餘名命 賭博團을 一網 打盡 嚴調』(『조선일보』 1937.1.23)

36) 「쫓겨가는 사람들」에서도 순사가 동척 출장소에 향의하던 옥련이 아버지를 경찰서로 끌고 가자, 마을 사람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더이상 항거하지 못한다.

37) 시라카와 유키타는 「아귀도」를 ‘동반자문학적 작품’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라카와 유키타, 『장혁주 연구』, 47면.

5. 조선 현실 재현의 좌절과 일제 순응

장혁주가 일본 문단에 작품을 발표한 것은 “일본어 작품은 조선어 작품보다 검열이 덜해서 일본어 작품 발표가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1932.12)³⁸⁾이었다. 당시 조선 내 검열과 관련해 조명희의 작품을 살필 필요가 있다. 조명희의 「낙동강」(1927.7)은 99군데 469자가량 복자가 되어 「아귀도」와 비슷한 정도의 검열이 이뤄졌음을 엿볼 수 있다. 조명희의 두 번째 작품 「춘선이」(1928.1)도 마지막 4줄이 지워지는 등 검열이 심했다. 그가 1928년 소련으로 망명한 것도 일제 검열과 조선 지식인에 대한 탄압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 장혁주는 일본 문단에 「아귀도」를 발표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찾아온 이육사에게 조선의 사정을 “좀 더 아는 나로서 한번 소개해볼까 한 것이 발표된 후에 보니 뜻에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 복자가 많아서”³⁹⁾라고 말했다.

나는 이들 민족의 비참한 생활을 널리 세계에 알리고 싶다. 호소하련다. 나의 문학은 이로써 존재하고 그 진가가 발휘되기를 원한다.⁴⁰⁾

내가 이전에 우리 민족의 처지를 예술화하여, 이를 영원히 세계에 알리겠다던 열의가 언제 이것에 의해 대체될지는 나도 모른다.⁴¹⁾

장혁주는 조선 민족의 비참한 실상을 세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아귀도」를 썼다고 했다. 그것이 자신의 문학의 중요과제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1934년에 발표한 두 번째 글에서 ‘민족의 처지 예술화’라는 자신의

38) 장혁주, 大島義夫 에스페란토 역, 이종영 한국어 역, 『쫓겨가는 사람들 La Forpelataj Homoj』, 한국에스페란토협회, 2002, 31면.

39) 이환, 앞의 글.

40) 장혁주, 「나의 문학」, 『문예수도』, 1933.1; 남부진·시라카와 유카타, 『張赫宙日本語作品選』, 東京:勉誠出版, 2003, 290면.

41) 장혁주, 「나의 포부」, 『문예』, 1934.4; 남부진·시라카와 유카타, 『장혁주일본어작품선』, 295면.

문학관으로부터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일제의 검열과 무관하지 않다. 장혁주는 「아귀도」에 이어 「쫓겨가는 사람들」(1932.10)을 발표하였지만, 이 역시 총 46군데, 260여자가 검열로 인해 지워졌다. 일제 검열 당국이 작품을 난도질하는 바람에 자신의 기대는 무너지고, 상당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쫓겨가는 사람들」의 경우 에스페란토어로, 중국어로 번역이 되는 등 그가 기대했던 세계로의 문학 전파는 일단 성공했지만, 계속되는 일제의 검열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특히 그의 「쫓겨가는 사람들」(『개조』, 1932.10)과 「분기한 자」(『문예수도』, 1933.9)가 발매금지를 당하고, 심지어 「나의 문학」(『문예수도』)을 발표해 준 아스타카 도쿠조(保高德藏)가 경시청으로 불려가는 상황을 맞기도 한다.⁴²⁾

1933년 2월 「특수한 입장」을 발표하여 전환을 시도한 문학인데, 조선 출신의 작가이므로 프로문학에 대한 압박도 한층 심했을 것이다.⁴³⁾

어떠한 박해나 구속을 받더라도 프로레타리아 작품만을 쓰고, 조선의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기개를 가지고 있는(귀형들이 바라는 것 같은) 인물이 아님은 불행(?)히도 사실입니다.⁴⁴⁾

헨미 히로시(逸見廣)는 장혁주가 조선 출신 작가이므로 프로문학에 대한 압박이 더욱 거셌을 것으로 설명했다. 사실 조선에서는 1931년 2월부터 8월까지 70여명의 카프 회원이 검거되었으며, 1934년 2월부터 12월까지 80여명이 검거되는 등 일제는 프로문학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다. 그 과정에서 전향과 탈퇴가 잇따랐고, 카프는 1935년 5월 마침내 해산된다.⁴⁵⁾

42) 장혁주, 「나에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행동』, 1935.2 ; 남부진 · 시라카와 유카타, 『장혁주일본어작품선』, 297면.

43) 헨미 히로시, 「장혁주가 걸은 길」, 『문예수도』, 1934.6 ; 시라카와 유카타, 『장혁주연구』, 102면.

44) 장혁주, 「나에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행동』, 1935.2 ; 『장혁주일본어작품선』, 297면.

한편 일본에서도 1932년 3월 하순 일본프로레타리아문화연맹(KOPF)에 대한 대탄압이 시작되어 4월에 구라하라(藏原惟人), 1933년 2월에는 고바야시(小林多喜二), 11월에는 미야모토(宮本顯治) 등 코프의 지도자 및 유능한 구성원들이 차례로 검거되었다. 그리고 1934년 2월 22일 해체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코프는 마침내 해산된다.⁴⁶⁾ 프로문학 운동에 대한 탄압이 일본보다 조선에서 더욱 심했으며, 이로 볼 때 헨미 히로시의 언급처럼 조선 출신 작가 장혁주의 프로문학에 대한 일제의 억압이 더욱 심했으리란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장혁주는 자신이 ‘어떠한 박해나 구속을 받더라도 프로레타리아 작품만을 쓰고, 조선의 피압박 민족으로서의 기개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님은 불행(?)히도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아귀도」의 성공과 좌절은 이후 장혁주의 문학 창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는 1934년 「나의 포부」에서 두 가지 예술세계, 곧 민족의 처지를 예술화했던 후천적 예술세계와 개인의 본능, 생존욕과 같은 선천적 예술세계가 있다고 언급하며, 후자로의 변화를 암시했다. 여기에 검열 및 발매금지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은 분명하다. 검열은 작가의 창작 의지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무의식적 검열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혁주는 “조선 민족의 비참함을 알리려는” 일념이 “곧 막다른 길로 치달아” 풍속소설로 나아갔음을 고백했다.⁴⁷⁾ 그가 차츰 조선의 비참한 현실 재현에서 거리가 멀어진 것도 일제의 검열

45)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34-38면.

46) 김문봉, 「일본 프로문학론과 운동」, 『문예미학』 3, 문예미학회, 1997, 325-329면. 한편 고영란은 일본 출판시장 재편 과정에서 사회주의와 식민지 발견이라는 개조사의 전략과 장혁주의 등단이 밀접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고영란, 「제국 일본의 출판시장 재편과 미디어 이벤트 -‘장혁주(張赫宙)’를 통해 본 1930년 전후 개조사(改造社)의 전략」, 『사이』 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5, 113-146면.

47) 장혁주, 「협박」, 호테이 토시히로, 시라카와 유타카 역, 『장혁주소설선집』, 태학사, 2002, 263면.

및 억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후 그는 일본에서 일제 체제에 편입되어 가면서 친일 내면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초창기 조선 민족의 비참한 현실을 그려낸 「아귀도」, 「쫓겨가는 사람들」, 「분기한 자」, 「산령」 등 리얼리즘 문학의 성취점은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의 문학 작품이 놓인 지점과 성취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경상북도 편, 『경상북도통계연보』, 대구인쇄합자회사, 1930
- 김계자, 『일본에 뿌리내린 한국인의 문학』, 역락, 2020.
- 김윤식, 『한국근대문예비평사연구』, 일지사, 1976.
- 김재용, 『식민주의와 협력(일제말 전시기 일본어 소설선1)』, 역락, 2003.
- 김학동, 『장혁주의 일본어 작품과 민족』, 국학자료원, 2008.
- 김학동, 『장혁주의 문학과 민족의 굴레』, 역락, 2011.
- 남부진·시라카와 유타카 편, 『張赫宙日本語作品選』, 東京:勉誠出版, 2003.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6.
- 시라카와 유타카, 『한국근대 지일작가와 그 문학연구』, 깊은 샘, 2010.
- 시라카와 유타카, 『장혁주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 임시사료편찬위원회, 『조일관계사료집』, 1919.
- 장혁주, 大島義夫 에스페란토 역, 이종영 한국어 역, 『쫓겨가는 사람들 La Forpelataj Homoj』, 한국에스페란토협회, 2002.
- 호테이 토시히로 편, 시라카와 유타카 역, 『장혁주소설선집』, 태학사, 2002.
- 고영란, 「제국 일본의 출판시장 재편과 미디어 이벤트-‘장혁주(張赫宙)’를 통해 본 1930년 전후 개조사(改造社)의 전략」, 『사이』 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9.5, 113-146면.
- 김광균, 「아귀도의 전망」, 『조선일보』, 1932.5.5.
- 김주현, 「보다 완전한 판본을 위하여-텍스트의 검열과 복원 고찰」, 『국어국문학』 186, 국어국문학회, 2019.3, 231-261면.
- 사회영, 「장혁주의 초기 프로문학 속에 숨겨진 아나키즘」, 『일본문화연구』 32, 동아시아일본학회, 2009.10, 225-246면.
- 유숙자, 「張赫宙의 문학행로-「餓鬼道」에서 「岩本志願兵」까지」, 『한림일본학』 5, 한림대 일본학연구소, 2000, 19-31면.
- 이무영, 김기림 등, 「문예좌담회」, 『조선문학』, 1933.11, 99-107면.
- 이 순, 「「아귀도」 독후감」, 『동방평론』, 1932.5, 80-86면.
- 이 활, 「신진작가 장혁주군 방문기」, 『조선일보』, 1932.3.29.
- 田村榮章, 「1932年 張赫宙 作家の誕生」, 『일본어문학』 13, 일본어문학회, 2002, 387-404면.
- 채충식, 「문예시평」, 『비판』 2-5, 1932.5, 116-121면.

<Abstract>

An In-depth Reading of Jang Hyuk-Ju's Novel, “Agwido”

Kim, Ju-Hyeon

While working as a substitute teacher at Yecheon Jibo Public School, Jang Hyuk-Ju witnessed the miserable life that farmers suffered during the drought disaster and wrote “Agwido”. It was published in the Japanese magazine “*Gaejo*”. Japanese government erased most parts of farmer’s resistance against Japan and Japanese government torturing farmers. Director ×× colluded with the Japanese authorities to oppress and exploit colonial farmers. Here, the labor management conflict is connected to the ethnic conflict, a conflict between the ××(Japanese) director and the Korean workers. The last part shows the appearance of Joseon farmers resisting Japanese power and people standing up to injustice. Here, it shows a fellow traveler who sympathizes with the socialist class struggle.

Key words: Jang Hyuk-Ju, Agwido, Yongamji, Monument of Yongamji, Restoration, Contextual reading

투 고 일: 2023년 5월 8일

심 사 일: 2023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6월 21일